

기획
취지문

스마트 콘텐츠 특집을 내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상헌 교수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은 콘텐츠 생태계를 급속히 바꾸고 있다. 2012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콘텐츠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스마트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콘텐츠와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기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게임과 전자책 부문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한바 있다. 뉴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화된 맥락을 반영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콘텐츠는 콘텐츠 산업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적용되어 개발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스마트 콘텐츠의 현황과 산업분야별 전망, 더 나아가 향후 콘텐츠 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기존의 스마트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술중심의 논의에서 조금 벗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느끼는 수요와 전망을 제시하도록 하여, 스마트 미디어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동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스마트 콘텐츠” 특집에서는 모두 7편의 글을 실었다.

- 스마트 콘텐츠 연구개발 정책
 - 영화산업과 콘텐츠 플랫폼
 - 스마트 플랫폼과 방송 콘텐츠
 - 스마트 콘텐츠로서의 디지털 개인출판
 - 브랜드 앱과 스마트 콘텐츠
 - 전통문화유산과 스마트 콘텐츠
 - 다양성 영화를 통해 본 스마트 콘텐츠의 범주와 가능성
- 정부의 스마트 콘텐츠 연구개발 정책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였으며, 영화, 방송, 전

자출판에서 스마트 콘텐츠를 통해서 모색하는 콘텐츠 생태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광고 홍보 분야에서는 브랜드 앱을 통해 단순한 광고에서 정보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새로운 매체로서의 스마트 콘텐츠를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 콘텐츠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미디어 장르가 스마트 콘텐츠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는 과정을 다양성 영화와 스마트 콘텐츠의 연결 가능성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특집에 귀한 글을 보내 주신 각계의 전문가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2013년 12월